

보도 일시	2022. 10. 2.(일) 15:30	배포 일시	2022. 10. 2.(일) 15:30
담당 부서 <총괄>	항공기상청 예보과	책임자	과 장 김용상 (032-222-3020)
		담당자	사무관 오태석 (032-222-2821)

10월 2일 <연합뉴스 등> ‘기상청 오보로 인한 결항·회항 하루평균 1.5회’ 보도에 대한 설명

기상청의 부정확한 기상 예측으로 국내 주요 항공사의 비행기가 결항하거나 회항한 사례가 최근 4년(2018~2021년)간 2천 209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.

- 기사에서 언급한 통계는 국토교통부에서 항공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로 항공사에서 사용한 기준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 부정확한 예보에 의한 결항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하지 않음
 - ※ 항공기 결항·회항의 원인이 오보라고 판단한 기준, 기상요소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각 항공사에 요청할 예정임

이 의원은 “항공업계가 기상청에 고액의 항공기상 정보 이용료를 내면서도 정확하지 않은 기상예보로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상청 오보를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”고 강조했다.

- 현재 항공기상정보 사용료의 원가대비 효율은 23.3%*에 불과한 실정임
 - * 편당 사용료/원가: 공항착륙시 11,400원/48,907원, 영공통과시 4,820원/20,633원
- 우리나라 항공기상정보 사용료(공항착륙시 11,400원)는 국내 총생산(GDP) 20위 이내 주요 유럽국가들의 평균사용료(23,461원) 대비 46.6% 수준에 불과
- 기상청에서 항공사에 제공하는 기상정보는 국제표준에 따른 국제품질 인증(ISO 9001)으로 관리하는 양질의 기상정보로, 공항예보정확도는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권고하는 80%를 상회하는 수준임
 - ※ 공항예보정확도: ('19.)86.6점 → ('20.)85.6점 → ('21.)87.1점→('22.1.~8.)89.1점

□ 붙임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현황

담당 부서 <총괄>	항공기상청 예보과	책임자	과 장 김용상 (032-222-3020)
		담당자	사무관 오태석 (032-222-2821)
<공동>	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	책임자	과 장 김지현 (032-222-3001)
		담당자	사무관 남숙영 (032-222-3040)



□ 항공기상정보 사용료의 원가 대비 요율

유형	사용료(A)	원가(B)	원가 대비 요율(A/B)
공항착륙시	11,400원	48,907원	23.3%
영공통과시	4,820원	20,633원	23.3%

※ [출처] 항공기상정보의 새로운 원가산정 분석('21.5.)

□ 우리나라와 GDP 규모가 유사한 유럽국가의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현황

- 우리나라 항공기상정보 사용료(공항착륙시 11,400원)는 GDP 20위 이내 주요 유럽국가들의 평균 사용료(24,461원) 대비 46.6% 수준

국가	사용료(원)	
대한민국	11,400	
유럽*	프랑스	38,378
	이탈리아	20,982
	스페인	17,795
	터키	17,529
	스위스	27,622
	평균	24,461 (우리나라 사용료 대비 약 2.15배)

* 각국의 원가회수율은 미공개로 항행서비스료의 원가회수율을 분석하여 항공기상정보 생산원가 회수율을 산출함(2018년 기준)

※ [출처] 항공기상정보의 새로운 원가산정을 위한 분석('21.5.)